

유네스코 '세계 재즈의 날' 광신대 지방대 유일 참여



채희호 전지연 최세열

유네스코(UNESCO)가 홈페이지를 통해 개최하는 '세계 재즈의 날(International Jazz Day)' 행사에 광신대학교가 국내 지방 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참여한다.

국제연합 산하기관인 UNESCO는 재즈의 역사적·문화적·교육적 기여를 기리기 위해 매년 '세계 재즈의 날'을 지원·개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재즈의 고향인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처음 개최됐고, 올해는 오는 30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공식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동시에 세계각지에서는 UNESCO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은 각국의 대표 뮤지션(재즈 뮤지션, 재즈클럽, 재즈협회, 재즈 교육기관)들이 여러 형태로 행사에 참여하고, 연주 영상을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한 뒤 게시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광신대 실용음악학과 채희호 학과장(드럼)·최세열 교수(콘트라베이스)·전지연 교수(피아노)가 UNESCO의 공식초청을 받았고, 서울의 재즈 뮤지션으로는 송영주 트리오 등 3팀이 초청을 받았다.

녹화는 오는 22일 오후 3시 광주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이뤄지고, 30일 유네스코 공식 홈페이지에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공개된다. 스탠드드 라틴재즈 Afro Blue와 한국의 민요 봉금포 타령이 한국적인 전통음악의 요소가 가미된 재즈로 재해석되어 트리오로 연주하게 된다. /체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담양 국제청소년교육재단

역사관·유당갤러리 개관



17일 담양 수복면에 위치한 국제청소년교육재단에서 역사관과 유당갤러리 개관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재단 조대이사장을 지낸 이대순 전 천연부작관, 남화도건 최상옥 회장, 임내현 국회의원, 배용태 전남도행정부지사, 최형식 담양군수, 광주·전남 전직관료 및 원로, 지역미술작가, 클勒터 등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또 김의도, 류창희, 황운주, 이병오, 정진희 작가 등이 초대됐다.

역사관은 30년이 넘는 국제청소년교육재단 역사를 이끈 선각자들의 흔을 기리고, 현신한 분들의 족적과 발자취를 고스란히 담았다.

유당갤러리 탄생은 일본의 만국박람회 기념협회로부터 일부를 지원받아 탄생된 세미나하우스를 남화도건 최상옥 회장이 기부한 사비 1억원을 들어 리모델링했다. 2층 규모로 앞으로 각종 전시와 출판기획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다목적 아트스트하우스로 탈바꿈시켜 예술공간의 품격을 더했다. 최상옥 회장, 최형식 담양군수 등이 미술작품을 기증했다.

국제청소년교육재단 이강열(78) 이사장은 "재단의 역사관과 유당갤러리 탄생에 한없이 기쁘고 자축하며, 혼과 열정을 다 바쳤던 선각자님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청소년교육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jg@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배동훈·류봉순씨 장남 혜성군 신민호(광주 서구 상무1동장)·오경 임씨 장녀 유리(국민은행 호남·남본부) 양=20일(토) 낮 12시 30분 라마다 플라자 광주호텔 4층 그랜드볼룸.
▲김형식·박준희씨 장남 도현군 인석원(광주일보 밤송부)·안정례씨 장녀 지애영=20일(토) 낮 12시 30분 일산 더 테라스 11층.

▲장자(광주 법무사)씨 장남 동원군 박정호씨 장녀 주연영=21일(일) 오후 1시 30분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황경환·김정순씨 장남 원일(화순초등학교)군 허기석(광주시 민간 협력체계)·김점옥씨 치녀 유리(화개초등학교) 양=20일(토) 낮 12시 40분 흘리데이인 호텔 2층 리벤더.

▲조형하(목포 법무사)씨 장남 민성군 이상섭씨 치녀 혼영양=20일(토) 오후 2시 ST워커텐 3층 메리골드홀.

▲서향렬·임행화씨 원준군 박평식(광주시 문화재계장)·조은희씨 시연 양=20일(토) 오후 5시 30분 피에제이 웨딩홀 2층 쥬얼리홀.
▲서대진(광주일보 봉선국장)·박정숙씨 장남 명균군 김영대씨 막내 유진양=27일(토) 낮 12시 아베뉴웨딩 13층, 피로연=20일(토) 오후 5시~7시 프리호텔 2층.

동창동문회

▲광주승일고 제20회 동창모임=20일(토) 오후 6시 30분 오복성회관(호남동) 010-6613-0840.
▲광주상고 32회·광주여상 20회 졸업 30주년 기념식=20일(토) 오후 2시 나주 중흥골드리조트.
▲교학법인 유은학원(광주상고·광주여상·동성고·동성여중)·총동문회(회장 전주연) 제17회 유은동문 한마음 대축제=21일(일) 오후 10시 광주동성고 대강당 062-361-2680.

북구, 지방재정 균형집행 '대상'

광주일보 창사 61주년 기념식이 18일 오전 리마다플리자 광주호텔에서 열렸다.

예향 복간 기념식을 겸한 올 창사 기념식은

모별 사원 표창과 예향 복간 공로 사원 표창,

예향 편집자인사 엔터(대표 이서영)에 대

한 감사패 증정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은 기념사에서 "회

갑의 나이를 맞은 광주일보는 지역 지도자

양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호남 최초로

신설한 리더스아카데미를 성공적으로 정착

시켰고, 11년 만에 예향을 복간해 중흥의 시

대를 맞았다"면서 "100년 신문을 향한 자부

심으로 독자들에게 좋은 정보, 가치 있는 정

보를 전달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자"고 강조

했다.

이와 함께 광주일보 회갑연 축하를 위해 정

인재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원우회장(새

천년종합건설 회장)을 비롯한 리더스아카데

미 회장단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체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그는 "인생 교육을 제대로 하면 학교폭력과 따돌림은 별일 끝이 없다"며 "암체같은 친구라도 안

이주고 배려하라"고 강조했다. 사랑을 베푸는 건 상

대를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광주라는 을

타리에 얹매이지 않는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당부

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경신여고 첫 명예학부모에 위

촉됐다. 또 강연에 앞서 여고생들에게 자신의 저서

"인생 2모작 시대...신나게 즐길 직업 찾아라"

경신여고 명사 초청강연 김황식 전 국무총리

첫 명예학부모 위촉

"가수 싸이가 떴다. 싸이의 공연은 신나고 즐겁다. 아마 의무감에 춥추고 노래했다면 오늘날 싸이를 찾을 것이다."

지난 2월 '올보! 명예상'이란 별명을 남기고 퇴임한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18일 광주 경신여고와 등학교(교장 남동우)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성공의 조건, 행복의 비결'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전 총리는 "돈·명예·권력을 갖는 게 성공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성공하는 것"이라며 행복을 찾을 마음 자세에 대해 조언했다.

그는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지 알아야 행복을 준비할 수 있다"며 "미래는 100세 장수시대, 과학기술의 빠른 진보, 양성 평등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인생이 길어지면서 한 가지 직업만이 아닌 2모작·3모작 하는 시대가 왔다"며 "직장·직종이 자주 바뀌다보면 스웨·학벌은 의미가 없어지고, 자신의 일을 신나게 즐기는 전문가가 성공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전 총리는 또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을 중시하고 강조했다. 목표를 향해 성실하게 나아간다면 설령 그 목표에 미치지 못 했더라도 최선은 다한 과정에서 보람과 성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어린시절 얘기를 들려주며 인성을 강조했다. "10살 쯤이었어요. 당시엔 거지가 많았는데, 집에 거지가 들어오자 큰 소리로 '거지가 왔어요'라고 말했다가 어머니께 크게 꾸중 들었어요. 거지에게 곡식을 들려 보낸 뒤 어머니는 내게 '집에 온 사람은 모두가 손님'이라며 차별하지 말라고 했어요. 평생 동안 이보다 더 강한 인간존중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는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면 학교폭력과 따돌림은 별일 끝이 없다"며 "암체같은 친구라도 안

이주고 배려하라"고 강조했다. 사랑을 베푸는 건 상

대를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광주라는 을

타리에 얹매이지 않는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당부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용봉동 경신여고를 방문해 학생들과 악수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연필로 쓴 페이스북-지사통신' 사인을 해주며 '꿈과 희망, 비전'을 열어줬다.

/백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백지영·정석원 6월 결혼



백지영(37)
지영(37)
과 배우 정석원(28)
이 2년여
간의 교제
끝에 오는
6월 결혼
한다.

백지영의 소속사 WS엔터테인먼트는 "백지영이 다음달 일본 데뷔 쇼케이스와 전주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 일정을 모두 마치고 결혼을 하기 위해 시기를 6월로 정했다"고 밝혔다.

둘의 만남은 정석원이 백지영보다 아홉 살 연하라는 사실로도 관심이 쏠렸다.

/연합뉴스

광산구, 지식재산 '우수 지자체'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사진)가 최근 지식재산도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특허청 주관 2012년도 지식재산 도시 사업 평가에서 특허청장을 수상한 것. 우수 지자체 선정은 광산구가 광주 차지구 중 유일하다.

평가는 각 지역이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나에 초점을 맞췄다.

광산구는 민선 5기 들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지식재산 경쟁력을 꾸준히 높여왔다. 2010년 1월 지식재산 텁을 신설하고, 같은 해 8월 지식재산 조례를 제정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했다.

민행광은 광산구청장은 "미래에 지역을 떠여 살릴 핵심 동력이 바로 지식재산"이라며 "주민과 기업이 쉽고 부담 없이 참여해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건강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성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그는 "인생 교육을 제대로 하면 학교폭력과 따돌림은 별일 끝이 없다"며 "암체같은 친구라도 안

이주고 배려하라"고 강조했다. 사랑을 베푸는 건 상

대를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광주라는 을

타리에 얹매이지 않는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당부

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경신여고 첫 명예학부모에 위

촉됐다. 또 강연에 앞서 여고생들에게 자신의 저서

공식 안내

22일(월) 오전 11시 나주

시 나평을 한부제 010-3618-6659.

▲(사)전주리씨 대동종약원 광주·

전남 지원 곡성분원 정기총회=23일

(화) 오전 11시 곡성군 곡성읍 군민

회관 소강당 011-641-1813.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시 062-1366.

모집

▲작은도서관 나